

다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새 희망을 노래합니다

생명줄교회

◆... 할렐루야! 다사다난했던 2024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입마루엘의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과 비전으로, 오직 믿음으로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성도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가 충만한 영적 부흥의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2025년에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을 목표로 성도의 사랑을 감동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계란 권사>



◆... 할렐루야!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며 평강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새해에는 "내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찬양을 마음에 새기며 나의 80년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더욱더 고백하며 가족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욱 깊이 알아가며 믿음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김호성 권사>



◆... 올 한해 크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며 삶의 방향을 정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새벽예배와 기도, 찬양, 말씀 묵상에 힘쓰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



기를 소원합니다. 가족과 성도, 이웃간에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감싸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양진 권사>

◆... 지극히 작은 자를 택하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큰 꿈과 없이 평안과 소박한 행복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은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끄시는 해였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에 찾아온 새로운 환경, 사랑, 직업을 만나고 도전하는 일은 청각장애가 있는 저에게 연려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나의 인생의 방향이 뜻하지 않은 길로 갈지라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는 말씀처럼 2025년도 나의 삶의 주님이 일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함을 보여주시며 당신의 계획하심대로 이끄시는 나의 아버지를 믿고 나아갈 것입니다. <정종만 집사>



◆... 생명 되시는 주님이 창세 전에 명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줄지도 마르지도 아니하는 완전한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해에는 교회를 위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회당에서나 삶의 여정에서 그분을 보다 더 알아가길 소원합니다. <최경희 집사>



창동교회

◆... 2024년은 온 교회가 성경을 통독하며 말씀 속에 빠져들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2025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초대교회의 영성 회복을 위하여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만을 의지하여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예수님을 닮아서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김양길 권사>



◆...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2025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에 기대하며 다가갑니다. 미지의 날들에 한 발씩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했습니다. 2024년에 엄청난 일들을 잘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엄청난 시련의 바람 끝에서도 추락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총리로 비상할 수 있었던 것은 기쁨과 감사로 최선을 다하여 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나라의 대통령과 성도들에게도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김영옥 권사>



◆... 2024년 청년부 회장으로 섬겼던 값진 경험을 하였고, 주님 안에서 공동체를 이끌어 갔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청년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더 깊게 나누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새해에 주님이 공동체에 보내주시는 모든 영혼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청년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꾸준히 보며 믿음으로 성장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강병수 청년>



◆... 2025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첫사랑 회복하고, 성령님의 인재를 순회하시며 충만하길 원하며, 영적으로 더욱 뜨거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만 꼭 붙잡고,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 되어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가 삶이 되며, 삶이 예배가 되어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풍성한 결실이 있는 새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김종숙 권사>

◆... 지난 2024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며 오래 다니던 직장에서 이직을 했습니다. 소외된 아웃을 돌보는 일을 하며 마태복음 6장을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마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다가올 2025년에는 원대한 목표보다 일상 속 당연한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피곤함보다 생명의 감사함을, 일상의 작은 순간에도 소중함을, 내 주변 이웃에게 사랑과 선함을 하며 열매 맺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심은 청년>



◆... 2025년에는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학교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김세연 학생>



◆... 2024년에는 초등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게 좋고, 교회 친구들과 지내는 것이 즐거웠으며, 어른들 이랑 함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온가족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2025년에는 중학생이 되는데,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고,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김재서 어린이>



◆... 2025년에 제가 각오하고 기대하는 것은, 첫째, 한 해 동안 건강히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 생활을 잘하길 원합니다. 둘째, 개인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과도 친밀한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대학 문화를 통해 새로운 생활을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정수현 학생>



謹賀新年

“

” (3:56)

개동교회



담임목사 윤성철

서울시 성북구 보국문로 143
☎ 02-914-5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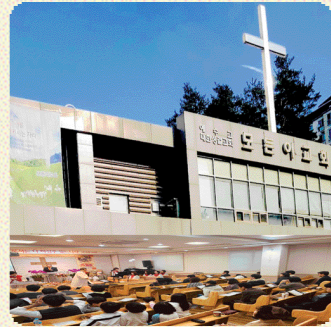
더드림교회



담임목사 신성관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16
☎ 02-583-2281

모든이교회



담임목사 윤여중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2길 5
☎ 02-521-3217

성지교회



담임목사 윤효석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26길 66
☎ 02-2665-3927

원당교회



담임목사 이명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84번길 19-15
☎ 031-966-3170

2025

가

가

| 성결신문사